

#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출자동의안

## 검 토 보 고

### 1. 제 안 경 위

- 가. 제 출 자: 서울특별시장
- 나. 의안번호: 제3216호
- 다. 제출일자: 2022. 5. 25.
- 라. 회부일자: 2022. 5. 27.

### 2. 제 안 사 유

- 서울시는 친환경에너지의 이용, 보급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16년 12월 서울에너지공사를 설립하였음.
- 이에 서울시는 서남집단에너지시설 건설과 노후 열수송관 교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수권자분금 범위 내에서 서울에너지공사에 현금으로 출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 3. 주요 내용

#### 가. 출자 개요

- 대상: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 출자규모: 1,471억원
  - ① '22년(추경): 59억원(노후 열수송관 교체)
  - ② '23년(본예산): 1,412억원(서남 2단계 1,222억원+노후 열수송관 교체 190억원)

사업명	소계	기출자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1년					
합 계	2,635	560	253	1,412	136	142	132
서남집단에너지시설 건설(2단계)	1,764	386	156	1,222	-	-	-
노후 열수송관 교체사업	659	-	59	190	136	142	132

#### 나. 출자 필요성

- 집단에너지 공급 및 노후 열수송관 교체는 친환경에너지 전환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이며, 서울에너지공사의 핵심 수행사업임
- 서울시는 '25년 이후 서남권 지역에 대한 안정적 열공급을 위해 서울에너지공사에서 추진 중인 서남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건립사업에 '19년부터 출자 중이며 '23년도에도 출자하고자 함.
  - 서남집단에너지 시설 2단계 총사업비 4,683억원 중 1,764억원은 시비로 연차별 분할 출자하고, 나머지 2,919억원은 공사에서 공사채를 발생하여 사업비를 충당할 예정임.
  - ※ 시의회 출자 동의 3회(제287회 '19.6월/ 제295회 '20.6월/ 제301회 '21.6월)

- 아울러, '87~'96년 매설된 열수송관의 노후화가 지속 진행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해 노후되고 누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열수송관에 대해 우선 정비가 필요함. 이를 위하여 '22년 및 '23년 사업비를 출자하고자 함.

## 4.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지방공기업법」

---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공기업법]

제53조(출자) ① 공사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 ③ <생 략>

---

나. 예산조치: '22년·'23년 서울에너지공사 출자금 예산 반영

- '22년 추경 편성, '23년 본예산 편성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 5. 검토 의견

### 가. 개요

- 본 출자동의안은 서남집단에너지시설 건설 및 노후 열수송관 교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수권자본금 1조원 내에서 서울에너지공사에 현금으로 출자하는 것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 나. 검토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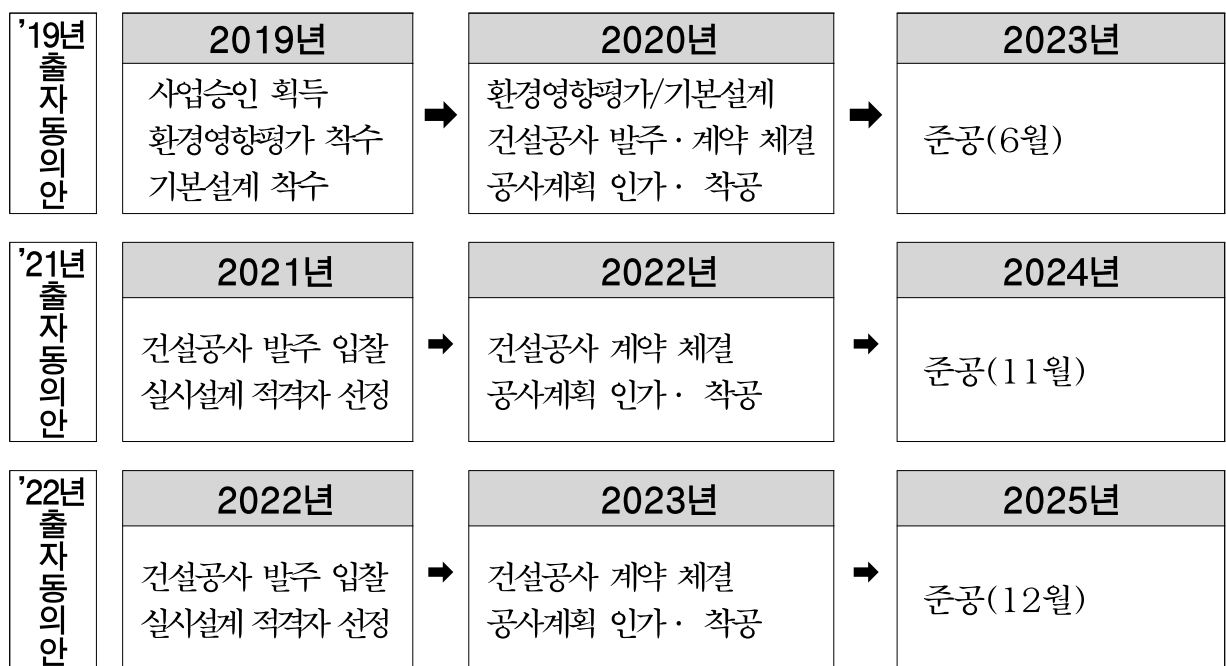
- 서울시는 지난 2019년 6월 제287회 정례회에서 서울에너지공사에게 2019년(추경)부터 2024년까지 2,425억원(현금 1,976억원, 현물 449억원)을 연도별로 분할 출자하기 위한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였고 출자 관련 규정과 규모 및 필요성 등에 동의하여 출자동의안을 원안 가결한 바 있음.
- 그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출자 총액을 일괄 동의하는 것 대신 매년 해당연도 출자액에 대해 출자동의안을 제출하도록 요구('19.12월)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20년과 2021년에 출자금 555억원과 710억원에 대한 출자동의안을 제출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받은 바 있음.
- 서남집단에너지시설 건설에 따른 총 출자 규모는 1,764억원으로 당초 계획과 변동이 없어 별도 의견은 없지만, 최초 계획은 2022년까지 출자를 완료하는 것이었으나 2023년까지 1년 연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계획 대비 실제 출자는 30% 수준에 지나지 않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은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음.

동 사업은 서울에너지공사의 재정건전성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날로 악화하고 있는 공사의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동 시설의 건설이 더는 지연되어서는 안 되며 서울시는 이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다양한 방면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음.

또한 2024년 이후 시설 건설비용은 공사채 발행을 통해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최근 높아지는 금리를 감안한다면 이는 공사의 재정 건전성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임.

〈서울에너지공사 서남집단에너지 시설 건설 관련 사업비 확보계획(안)〉

구분	합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총사업비	4,683	86	160	913	156	1,222	1,415	731
시 출자금	계획	1,764	86	555	732	391	-	-
	실제		86	160	140	156	1,222	-
공사 차입금 (공사채 발행)	2,919	-	-	773	-	-	1,415	731



〈서남집단에너지 시설 건설 관련 출자동의안 출자 계획 및 시행 변경 현황〉

- 노후 열수송관 교체사업은 「서울시 지반침하(땅꺼짐) 특별대책(안)」(’22. 4) 중 하나의 사업으로 열수송관 총연장 428km(214km×2열) 중 20년 이상 노후배관을 전면 교체하고자 하는 것임.

서울에너지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관련 고시<sup>1)</sup>에 따라 20년 이상 노후 배관의 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나,<sup>2)</sup> 우선 공사 자체 점검을 통해 최근 5년간 누수 등 이상 징후가 있는 열수송관 매설 구간을 선정하였고, 이를 교체·보수하기 위해 2022년 59억원(2.6km 구간), 2023년 190억원(13.2km 구간) 등 총 659억원(~2026년)의 예산을 산출한 바 있음.

본 출자동의안은 2022년 추경예산과 2023년 본예산 편성 전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 취지나 내용에 대한 이견은 없으나, 하반기 추경 편성(’22.8~10) 및 출자(’22.9~11)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열수송관 교체공사로 인한 난방열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바, 입찰공고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계획한 기한 내에 교체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서울시 지반침하(땅꺼짐) 특별대책(안) 내 노후·취약 지하시설물 연차별 정비계획〉

구 분	합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합계	1,767.6km (24,571억원)	307.6km (3,683억원)	329.2km (4,659억원)	385.6km (5,524억원)	373km (5,391억원)	372.2km (5,314억원)
하수관	1,446km (19,122억원)	247km (2,708억원)	257km (3,517억원)	312km (4,266억원)	318km (4,356억원)	312km (4,275억원)
상수관	272km (4,790억원)	58km (916억원)	59km (952억원)	64km (1,122억원)	44km (893억원)	47km (907억원)
<b>열수송관</b>	<b>49.6km (659억원)</b>	<b>2.6km (59억원)</b>	<b>13.2km (190억원)</b>	<b>9.6km (136억원)</b>	<b>11km (142억원)</b>	<b>13.2km (132억원)</b>

1) 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21.9월)

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의 세부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임.